강연초록 — 임금수준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을

임금체계 단순화로 생산동기 유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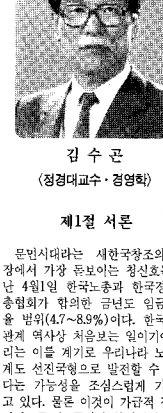
본교 경영대학원 산업관계연구소(소장:전기호 경영대학원장)는 지난 19일 한국표준스센타에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임금협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사 당사자들의 임금인상안에 대한 타당성과 협상과정의 합리성을 학계와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분석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임금교섭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주제는 △이원덕(한국 노동연구원 부원장) 박사:임금수준결정에 관한 노사협상전략 △최종태(서울대)교수:교섭형태에 관한 노사협상전략 △김수곤(본교 정경대 경영)교수:임금수준보다 임금체계에 개혁을 등이었다.

본교는 김수곤 교수의 주제발표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註〉



김 수 곤

〈정경대교수·경영학〉

제1절 서론

문민시대라는 새한국창조의 첫 장에서 가장 돈보이는 청신호는 지난 4월1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합의한 금년도 임금인상을 범위(4.7~8.9%)이다. 한국노사관계 역사상 처음보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가급적 잘 지켜지도록 온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 생각하면 잘못이다.

인상율에 따른 임금수준이 일단 지켜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임금체계의 문제이다. 임금체계란 피용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 그리고 부가급여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임금지급 목적에 부합되고 그 산정방법이 공평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이다. 임금이 경영의 도구라는 점에서 임금체계가 합리적이면 근로자의 동기유발이 될 것이고 비합리적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제2절 경영관리도구로서의 임금

우리나라 근로자가 과거에 3D를 좋아하지는 않으면서도 기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설업이 무섭기 때문이었고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근로자들이 3D를 기피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임금체계가 합리적이어서 3D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조직체들에 있어서만 3D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임금체계가 동기유발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시에는 학력급(學歷給)을, 입사후에는 연공급(年功給)이 의해서 임금이 차등지급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교육열만 달아올라 기형적 고학력사회로 몰려가고 기업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기 보다는 남 나보다 수만 채용으로써 득을 보려는 풍토가 만연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일본도 돼거에는 선임권을 많이 존중해 왔던 것을 과감히 타파하고 직무급적(職務給的) 성격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도입하면서 직능급이라 표현할 뿐 우리나라 기업처럼 선임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제도나 관행이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나 잘못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통도 좋고 관행도 좋다. 단 그것이 변해가는 기술과 경쟁사회에서 순기능을 할 때 말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각'에 녹이 슬었고 민주화의 물결이 직장에 보편화되면서 이제 합리적 경영과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행이나 전통이라해서 현상유지만 할 수는 없다. '미꾸라지'로 남느냐 '용'이 되어 다시 도약하느냐는 것은 오로지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인력에 동기를 부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임금을 도구로 해서 노동을 유인한다는 것이 결코 비인도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을 통한 동기부여가 실업이나 소위 '이테올로기'라는 미명의 공갈협박을 통한 동기부여 방법보다는 더욱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제3절 악명높은 포괄역산 관행

우리 나라 임금체계를 걸레처럼 만든 원흉은 악명높은 포괄역산제(包括逆算制)를 낳게 한 허울좋은 임금관련 법제도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려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률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월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급을 알자면 통상임금(通常賃金)을 알아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노동부 예규 제150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초과근로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월임금으로서 이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잔업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시간당 임금이 된다. 연 상여금을 12분한 것과 월정임금을 합하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된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실근무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해당 월중에 각종 법정수당을 다 지급한 것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주차수당(週次手當)도, 월차수당도 다 지급된 것으로 간주를 한 월소정근무시간으로 나눈 것이라야 한다. 포괄역산이란 노사간에 합의한 월급여액(통상임금)을 가지고 각종 법정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통상임금이라 표현되는 월급여액, 즉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업마만큼이냐에 관한 것이 그 첫째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 둘째 문제이다. 첫째 문제는 뒷 절에서 다시 평균임금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월소정시간의 계산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법(?)을 만들었다.

원래의 입법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포괄역산해준 것이 어느덧 관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때문에 월통상임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시간급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잔업수당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사간에도 마찰의 소지가 되며 임금관리에 크나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부터 46시간, 또다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기업에 따라서는 1백73시간부터 2백40시간까지의 다양한 수치를 쓰고 있음이 드러났다.

월소정근로시간율 산정하는 묘은 관행은 1일 8시간 30일=240시간으로 계산해 왔다. 일요일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왜 임금을 주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노동 유임금(無勞動 有賃金)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조차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7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고 소극적이나마 노동운동이 추진됨에 따라 노조에서는 45조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당 임금계가 정착이 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월급여를 포괄적으로 역산해서 일요일 임금을 지불한 듯이 기록함으로써 법 45조의 의무조항을 이행한 것처럼 위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주차수당은 애초부터 근로자에게 실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공허한 약속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득 본 사람은 결코 근로자도 아니고, 물론 사용자도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

제4절 합리적 임금체계를 위하여

한국노동시장이 과잉공급상태로부터 상대적 결핍상태로 소위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하고 나니 그런에 달 주겠다는 쪽사이에서 줄다리기만 했지 임금을 경영의 도구로서 즉 성과에 비례한 임금을 또는 더 럽고, 어렵고, 위험한 정도에 따라 그것을 보상하는 식의 임금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점을 지나면서 과거에 쓰던 도구는 부럽화되었고 임금을 통한 새로운 동기유발은 아직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3D기피현상이 만연한 것이다.

노·사에 실익없는 포괄 역산제 철폐 바람직

공헌에 비례한 임금보상체제로 전환 필요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하다. 3D기피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공헌에 비례하도록, 그리고 직무의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만 한다면 그리고 간판뿐인 학력이나 실속 없는 자격증이나 단순한 연공들은 임금격차에 반영되지 않도록하면 될 것이다.

임금이 경영의 도구성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인을 현행 근로기준법과 잘못된 관행가운데서 찾아내고 그것을 개혁할 것을 본문 중에서 역설하였다. 물론 원인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나 외식구조의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짧은 기간내에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못되고 점진적으로 올바르게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제도개혁을 하면 잘 못된 관행이나 인습도 의식구조도 그에 따라 변할 것으로 확신하다.

〈정리:조기홍 記者〉

번영과 생존의 갈등…환경문제로 집약

논문초록 — 환경문제와 가치관의 충돌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환경정책 결정에 관련이 있는 환경보전, 자원지속성 및 생태계완전성 등 일부의 환경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어떠한 근거에서 방어될 것이며, 환경가치가 고용이나 정의와 같은 인간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주어져야 하며, 윤리는 생태학이나 한정된 지구상의 요구사항으로 부터 추출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 및 환경가치가 어떻게 윤리적 원리로만 아니라 정책결정, 정치전략 및 개인적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1. 환경윤리와 인간의 생존문제

환경윤리의 세가지 근거로서 ① 환경으로 부터의 인간번익(환경보전) ②장래세대에 대한 의무(자원지속성) ③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무(생태계완전성)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환경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여러가지 조치는 우리의 일생중에 인간생활에 대한 기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간중심적인 입장은 비인간적인 자연에 대한 인간의 외존이 인정된다면 자연에 대한 약탈적인 지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둘째로 여러 인간의 환경적 편익과 비용은 측적되며 장기간에 걸치게 된다. 자원을 소모하며 환경을 산할 수 있는 지속적 산출 속에 유지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 전망은 전통적인 철학적 또는 종교적 원리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상이한 일련의 윤리적 상정을 요한다. 우리는 인간이나 비인간이라는 개별존재로 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전체 조 망 적 이 해(holistic understanding)와 그 보전의 조건으로 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며, 윤리적 규범을 한정적인 지구위의 생존을 위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가치로부터 정책으로

우리는 다양한 가치의 일부를 함께 묶어서 정책결정에 대한 그 적용을 문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인간 및 환경가치에 대한 위임이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복합될 것이며, 사회적 변화가 가치 또는 제도의 변화로 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려하는 여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치관의 충돌은 환경보전, 고용기회 및 사회정의 등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철학과 윤리, 정책결정 및 정치전략의 세가지 수준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환경의 질, 고용 및 사회정의의 목표를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으며, 한 가지는 다른 가치 때문에 희생될 수 밖에 없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실제적인 행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며, 우리가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에 가치 보다는 제도의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날의 환경위기가 자연 및 기술에 대한 태도와 같은 가치의 충돌이나 또는 산업사회주의와 같은 사회제도의 추구에 의한 산물이냐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가치와 제도는 그 어느 것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환경피해는 주로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은 제도의 규제를 요한다. 현존하는 제도는 여러면에 있어서 환경 및 인간복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비효과적이므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그 양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 및 기술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하며, 다양한 태도의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충돌되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을 통하여 사회제도에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의 일부로서 계속 생성발전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신 덕 현

〈산업정보대학원 교수〉

자연과 기술에 대한 가치관 면밀히 검토해야

환경 파괴하는 제도, 획기적 변화 필요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의 계산방법과 근거

방법	주당근로시간이 48시간→46시간	주당근로시간이 46시간→44시간
Ⅰ	46시간/6월×30월=230시간	44/6×30=약220시간
Ⅱ	240시간−(2시간×4주)=232시간	240−8−8=224시간
Ⅲ	[(46시간+8시간)×54주+8]/12=약235시간	[(44+8)×52+8]/12=약226시간

(방법Ⅰ)은 노동부 지침이었고, (방법Ⅱ)는 상당히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행이며, (방법Ⅲ)은 최저임금심의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율을 월통상임금으로부터 포괄역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1993학년도 일반·특수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일 반 대 학 원

I. 석·박사과정

1. 모집과정 및 학과:
* 국어국는학과 * 영어영문학과 * 불어불행과 * 중어중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사학이학과 * 철학과 * 법률학과 * 행정학과 * 정치학과 * 신문방송학과 * 경제학과 * 경영학과 * 무역학과 * 회계학과 * 사회학과 * 수학과 * 생물학과 * 지리학과 * 물리학과 * 화학과 * 산업공학과 * 전자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계산학과 * 기계학과 * 화학공학과 * 섬유공학과 *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원자재산공학과 * 산업공학과 * 재료학과 * 무용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조각조형학과
* 표는 박사과정 신치학과
2. 원서교부 및 접수:1993년5월24일(월)~1993년5월27일(목)
3.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1993년6월19일(토) 오전10시(본 대학원)
4. 시험과목:가나다순서:영어, 전공, 면접
나)박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제2외국어(영어, 사학, 불학, 한국학과에 한함)
*TOEFL시험성적:이상, 사학, 사전, 이공학 전월 550점 이상, 예체능계열은 540점 이상 취득자는 영어시험면제(취득 2년 이내 유효)
*본교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은 병역특례대상 기관임.

II. 학위심청 석·박사과정
1. 모집학과: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2. 원서교부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전공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율은 각 100점으로 하며 석·박사 과정과 별도 시행함.

III. 연구생과정
1. 모집학과:석·박사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무과(☎961-0122~3)으로 문의 바람.

경영대학원(야간)

1. 모집학과 및 과정:석사, 연구 및 최고경영자과정
가)경영학과(인사관리, 마아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나)세무관리학과(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 각 전공)
다)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노동정책, 노사관리, 노동경제 각 전공)
라)관광경영학과(관광자원개발, 호텔경영, 관광홍보, 사업경영 각 전공)
마)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행정 각 전공)
바)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분계법, 국제경제 각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1993.5.26(수)~6.2(수) 16:00
3. 시험일시 및 장소:1993.6.12(토) 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전공 기초분야), 면접
나. 연구과정, 최고정책 과정 및 의회지도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가)각종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수석합격자와 제학종 각 학과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 장학금으로 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무과(☎961-0126~8, 962-9688)로 문의바람.

행정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연구과정
1)행정학과: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 간호행정, 병원행정
2)도시 및 지역정책학과: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환경행정, 토지 및 주택정책
3)사법행정학과:사법행정
4)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보험행정
나. 최고정책 과정
다. 의회지도자 과정
2. 원서교부 및 접수:1993년6월1일(월)~1993년6월9일(수)
3. 시험일시 및 장소:1993년 6월19일(토)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전공 기초분야), 면접
나. 연구과정, 최고정책 과정 및 의회지도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현역군인, 국가공무원, 각종고시1차 합격자, 간호사, 본대학교 동문은 수업료의 20% 장학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무과(☎962-1213, 962-0131)로 문의바람.

교육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교육학 석사과정
1)모집전공
교육행정, 초등교육, 국민윤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윤리교육, 농업교육,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요업공예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2)모집인원:자원공별 약간명
나. 연구과정:석사학위 과정에 준함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 초등교육전공 지원자전은 국민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전공시험(필기)및 면접
나.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4.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1993.5.20(목)~6.11(금)17:00
나. 원서접수:1993.6.7(월)~6.11(금) 17:00
다. 필기시험 및 면접:1993.6.19(토) 10:00
5. 특전
가. 현직 교원은 전 이수기간 동안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 현직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직에 재직하는 분에게는 입학전형에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교과경력이 탁은분을 우대함)
다.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취득을 원하는 자는 중신대학에서 교육과목을 8학점(평균 80점)이상 이수했어야 함.
라. 대학의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관련이 있거나 중등정교사로 본 대학원에서 규정된 교육과목 20학점(상급교사(중등)의 14학점, 교과교육영역의 6학점, 교육실습 2학점)과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자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 운영지침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무과(☎904-6674, 961-0134~6)로 문의바람.

신문방송대학원(야간)

1. 모집학과 및 과정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방송전공)
2)광고학과(PR 광고전공)
3)출판학과(출판잡지 전공)
나. 언론연구자과정:고급이상의 학력소유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한 희망자 환영.
2. 원서교부 및 접수:1993.6.3(木)-6.14(月)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본 대학원(체육대학 5층)교무과
4. 시험일시 및 장소:1993.6.19(土) 오후2시(본 대학원 체육관 5층)
5. 시험 과목
가. 석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나. 연구자과정 및 언론연구자과정:서류전형 및 면접(경력참조)
6. 특전
가. 수석합격자는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 제학종 학과는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의 30%을 장학금으로지급함.
다. 본교 동문은 전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라. 출판잡지 전공의 성적우수자에게는 방우출판장학금을 특별 지급함.
마. 언론계종사자중 우수 경력자에 한하여 특전을 부여함.

산업정보대학원(야간)

I.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지역개발 행정학과,경영정보학과,무역정보학과,회계정보학과,기계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정보통신학과,제어계측학과,산업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가공학과,(각 학과 약간명)
2. 원서 교부 및 접수:1993.6.10(목)-6.18(금)(토,일요일은 휴무)
3. 면접 일시 및 장소:1993.6.26(토) 13:00 본대학원
4. 전형 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동문 및 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 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II. 최고경영자과정
1. 모집인원:○○명
2. 응모자격:공, 사기업체의 최고 경영자및 임원 정부및 유관기관의 간부, 개인사업자, 기타사회단체의 간부등 (학력 제한없음)
3. 원서 교부 및 접수:1993.6.10(목)-6.24(목) 토,일요일은 휴무
4. 전형일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5. 면접 일시 및 장소:1993.7.3(토) 13:00-본대학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원 교무과(☎서울:745-5889, 수원:280-2130~1)로 문의바람.

평화복지대학원

I. 모집학과 및 인원
가. 과정:석사과정(2년 6개월)
나. 모집인원:약간명
다. 모집과목 및 전공(5개학과 15개 전공)
1) 평화안보학과-평화학 전공, 안보학 전공
2) 통북이학과-한국어학, 일본전공, 중국전공, 러시아전공
3) 국제 및 정책학과-국제정책전공, 비교정책전공
4) 국제경영학과-국제경영전공, 국제통상전공
5) 사회교육학과-사회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2. 입학자격
국내외 대학 졸업자 학사 및 석사과정을 밟은 자와 동예정자
3. 전형방법
가) 필기시험:영어시험 및 논문(국문)
나) 1차 면접:1월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결정의 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1통
나) 출업(예정)증명서 1통 (단, 출업증명서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다)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학점인 제는 소정양식서 각 1통
마) 사진 (명함판)3매
5. 장학제도
가) 재학중 희비관련 장학금을 지급함
나) 가속서(상장서학)국외에 필요한 국비장학금을 지급함
6. 우지사항
가) 본 대학원은 타기대학원과 달리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나) 교수전은 국내 외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다) 대학장 강좌는 영어로 행을 원칙으로 함
라) 21세기의 다양화, 전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
마) 전공과목에 따라 정책학, 경영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바)관리직 인재도를 위해 4학기 집중시행하여 석사학위 수여 함
7. 원서교부 및 접수:7/12:1993.6.14(월)-6.26(토) 17:00
8. 전형기간 및 장소
가) 필기시험:1993.7.(목) 10:00
나) 1차 면접:1993.7.3(월) 10:00
다) 2차 면접 및 최종합격:1993.7.7(수) 09:30
9. 원서교부 및 접수처:본대학원 교무처(경기도 광주소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0336)765-7021~30)으로 문의바람